도안사-법문사, 한중 불교교류 새 이정표

9월 21일 기념법회 · 탑 제막식
법문사 방장 등 150여 명 동참
2005년 불지사리 韓이운 기념
순례단과 우호 증진 교류 나눠
혜자 스님 "신심 뿌리 확인 법석"

중국 시안=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서울 도안사 108산사성지순례단은 중국 서안 법문사에서 '불지사리 한국 이운 친견법회 및 20주년 기념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법문사 합시사리탑에서 기념촬영 중인 순례단.

한·중불교 교류의 이정표가 될 탑이 서울 도안사의 원력으로 중국에 세워졌다.

서울 도안사 108산사 성지순례단(단장 선묵 혜자 스님, 도안사 회주)은 9월 21일 중국 서안 법문사에서 '불지사리 한국 이운 친견법회 20주년 기념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과 법문사 방장 관엄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함께했다.

韓도안사와 中법문사 20년 교류

중국 법문사에서는 1987년 불지사리(지골사리, 부처님 손가락 사리)가 발굴됐으며, 2005년 한국에서 첫 해외 친견법회를 열었다.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선묵 혜자 스님은 불지사리를 한국으로 모셔 와 조계사 등지에서 친견법회를 봉행하면서 법문사와 도선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었다.

2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지난 4월 3~6일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도안사 주최 '부처님 불지사리 친견법회 20주년 기념전'을 개최했으며 이에 방장 관엄 스님을 비롯한 법문사 대표단이 내한한 바 있다. 이번 순례단의 법문사 방문도 20년간 이어 온 친선우호의 일환이었다.

선묵 혜자 스님은 기념법회 축사에서 "이번 제막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의 도리를 증명하는 자리"라며 "20년 전 불지사리를 한국에 모셔 친견 법회를 열었던 감회가 다시금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 법회가 양국 불교의 황금 유대와 성지순례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회에 이어 기념탑 제막식이 진행되며 한중불교 발전과 한중 우호를 바라는 자리가 펼쳐졌다. 기념탑은 도안사 석탑을 본떠 만든 형제탑으로, 법문사 대표단의 올해 도안사 방문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법문사 방장 관엄 스님에게 기념사진첩을 전달하고 있다.

당시 관엄 스님의 한국식 석탑 조성 의견에 따라 형태가 결정됐다.

관엄 스님은 "20년 전 도선사와 법문사는 불지사리를 인연으로 형제결연을 맺었다"며 "세월은 흘렀으나 불자의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변함없는 우의를 강조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법문사 방장 관엄 대화상'이 새겨진 자개 명패를 선물했으며, 관엄 스님은 법문사 전통이 담긴 청자와 공양보살상 자수액자를 전하는 등 우애를 나눴다.

중국 최고의 성보 통한 양국 교류

순례단의 방문은 법문사 측의 세심한 배려 속에 진행됐다. 법문사 대웅보전에서 진행된 육법공양 후 순례단은 진신보탑 지하궁을 참배했다. 법문사는 복원공사로 인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지하궁을 개방했다. 법문사 지하궁은 1981년 13층 진신보탑 붕괴 후 복원과정에서 발견된 지하 비밀공간으로, 여기서 발견된 지골사리는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불지사리 봉양이 관례가 될 정도로 중국 최고 성보로 꼽힌다.

불자들은 합시사리탑에서 육법공양을 올렸다. 합시사리탑 육법공양에서 순례단원들의 얼굴에는 20년 전 한국 땅을 찾았던 부처님의 가피를 되새기는 감격과 환희의 빛이 가득했다.

사리 참배에 이어 법문사 성보박물관에서 사리장엄구 등 출토 유물을 보는 자리에서 순례단원들은 오체투지로 예를 올렸고, 일부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한 기도를 올렸다.

법회에 참석한 한 불자는 "20년 전 서울에서 느꼈던 전율을 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직접 법문사를 찾아 스님들의 인도로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공양까지 올리니 감회가 새롭다"며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간절히 발원했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법문사 경내에 제막한 불지사리 한국친견 20주년 기념 석탑.

선묵 혜자 스님은 "불지사리를 친견한 인연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 다리"라며 "오늘 맺은 이 인연이 한국과 중국 불교 모두의 수행과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도안사 108산사 순례단은 9월 18일 중국 밀교 총본산인 대흥선사, 9월 19일 법상종 총본산 흥교사 등을 참배했다.

도안사 108산사 순례단 순례 동참기

옛 구법승 걸었던 구법로드
직접 순례하니 환희심 절로

도안사 108산사순례단의 중국 성지순례 여정은 불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던 구법승들의 여정과 닮아 있었다.

9월 18일 시안에 도착한 순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자은사(大慈恩寺). 17년간의 목숨을 건 여정 끝에 657부의 경전을 가져와 중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현장(玄奘) 법사의 숨결이 깃든 곳이다. 순례단은 7층으로 우뚝 솟은 대안탑(大雁塔)을 탑돌이하며, 오직 진리만을 위해 사막과 설산을 넘었던 한 인간의 위대한 의지와 구법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이어 도안사 108산사순례단은 시안 대흥선사를 방문했다. 순례단은 지객 스님의 안내로 대웅보전을 참배하고 이어 대흥선사 방장 관욱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대흥선사는 중국불교계에서 밀교 중심 사찰로 당나라 시대에는 장안(長安)의 4대 사찰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다.

9월 19일 방문한 초당사(草堂寺)에서는 불교 경전 번역의 역사를 바꾼 구마라집(鳩摩羅什) 스님의 사리를 친견했다. 스님의 유려하고 정확한 번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금강경〉, 〈법화경〉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순례단은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팔보옥탑(八寶玉塔) 앞에서 예를 올리며, 시대를 넘어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 준 은덕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선묵 혜자 스님의 안심법문과 〈반야심경〉 독경 후 정토조사인 선도대사 사리탑을 돌았다.

순례는 때로는 장엄한 자연 속에서, 때로는 화려한 문화 속에서 계속됐다. 셋째 날, '서악(西嶽)'이라 불리는 화산(華山)의 험준한 산세는 순례단을 압도했다.

순례의 정점은 넷째 날인 9월 21일, 법문사에서 봉행된 기념행사들이었다. 이날 일정은 한중 불교 교류사에 길이 남을 '불지사리 한국 이운 20주년 기념탑' 제막식으로 시작됐다.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순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불교계의 변치 않는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탑이 모습을 드러내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례단원들의 얼굴에는 20년 전 한국 땅을 찾았던 부처님의 가피를 되새기는 감격과 환희의 빛이 가득했다.

금춘희 보살(60세, 경기 광명시)은 "108산사순례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수행의 길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며 "이번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시안=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중국 법문사에 세워진 한중 우호형제사찰 맹약 비문을 선묵 혜자 스님이 둘러보고 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50주년 기념

불교 현대화를 위한 불교 학술 문화의 마중물이 되다!

대원불교학술총서 · 대원불교문화총서 시리즈로 발간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서
윤회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408쪽, 2024년



불교의 핵심 가치인 존엄, 자유, 평등, 법치주의가 곧 자유민주주의 이념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구상진 지음, 600쪽, 2025년



수행 경험자와 초보자 모두에게 최고의 안내서
통찰의 체험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 248쪽, 2025년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해명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문일수 지음, 360쪽, 2023년

○ 대원불교학술총서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비구니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문일수 지음
달라이 라마의 정치 철학,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불교 윤리 1 · 2,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안환기 지음
불교경제학, 클레어 브라운 지음, 박찬국 옮김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존 메이컴 엮음, 정환희 옮김
까르마,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
불교와 과학, 앨런 월리스 편집, 박재용 옮김
선과 유식, 다케무라 마키오 지음, 권서용 옮김
무에 대한 탐구,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옮김
불교윤리학 입문, 데미언 키온 지음, 조은수 옮김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안성두 지음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브룩 지포린 지음, 정천구 옮김
불교철학 길라잡이, 이규완 지음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구상진 지음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피터 싱어 · 스저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
통찰의 체험,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오용석 지음
세계 불교의 여성들, 카르마 렉세 쏘모, 조승미 옮김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이석주 지음
한국 현대불교사, 김경집 지음
만해 한용운 미학의 철학, 백원기 지음
불교 이후,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 대원불교문화총서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이한영 지음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 방경일 지음
몽이의 깨달음, 용정운 지음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권오민 지음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 지음
만화로 보는 염불명상 길라잡이, 방경일 지음
아이찾는 아이, 김태라 지음
공심이의 비밀 일기, 김임천 지음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한상희 지음
사랑은 아프다, 로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

도서 출판 보급처 :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3672-7181
다음카페 :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